

지역 대부업체 잇단 폐업... 사채시장 음성화 우려

불법 정보 활용 TM 영업 중단에 타격

작년 311곳→올 272개... 1년새 13% 감소

중개 수수료 제한과 최고금리 인하 직격탄을 맞은 지역 중소대부업체들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29일 대부금융협회와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총 311개였던 지역 등록 대부업체가 올해 같은 달 기준으로 272개로 줄었다. 1년 사이 12.5%나 문을 닫은 셈이다.

등록을 취소한 업체 대부분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출을 알선만 해주

는 중개업체이거나 대부와 중개를 겸하는 중소기업체였고, 법인 보다는 개인업자인 경우가 많았다.

대부업체는 지난해에는 6월부터 대출 중개인에게 대출금액의 5% 이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중개수수료 상한제'의 영향에 따라 법인 대부업체가 타격을 받았다면 최근에는 카드 고객의 정보 유출 사태로 불법정보를 활용한 TM 영업이 중단되면서 그간 이 같은 정보로 이

용해 영업을 해오던 업체의 폐업이 속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말 294개였던 대부업체 수는 TM 영업 중단 조치가 취해진 한 달 만에 2곳이 줄었다.

광주 동구의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지역 중소대부업체들이 대출 중개인이 이탈하고 최고금리까지 내려가는(4월 이후 연 39%→34.9%) 상황에서 영업을 어려워 겪어 폐업하고 있다"며 "이 와중에도 대형 대부업체들은 연 10%까지 대출금리를 인하고 광고를 강화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고 있어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에서 대부업체가 즐고

있는 만큼,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불법 사금융이 늘고 있다는 예기도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업체의 폐업이 잇따르면서 저신용자의 대출이 점차 어려워지고, 이 과정에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금융업계는 경기불황에 따라 전체 대부업 이용자 중 7~10등급의 저신용자 비중이 80%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2002년 대부업법이 시행되면서 불법사채를 하던 사람들이 양지로 나왔었는데 다시 대부업체의 음성화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기회에 서민의 피해를 막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형 대부업체를 정리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금융당국과 정부는 대부업체의 광고를 제한하거나 검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고 각종 규제도 대부업체를 옥죄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나서서 강하게 단속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중고 수입차 광주서 잘 나가

1분기 판매량 33% 증가 BMW·아우디·벤츠 順

1분기 광주지역 중고 수입차 판매량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차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 시세가 저평가된 것이 인기 요인으로 꼽혔다.

29일 광주 중고차 전문 사이트 카사랑방(carsrb.co.kr)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광주지역 중고 수입차의 판매대수는 총 403대로 전년 동기(303대) 대비 33.0%가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1년 같은 기간(222대)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제조사별로는 BMW가 가장 많이 판매됐다. 전체 판매 중고차 가운데 90대(22.3%)로 1위를 차지했다. 아우디(69대)가 2위였으며 뒤를 이어 벤츠(63대), 폭스바겐(62대), 혼다(29대), 렉서스(23대), 인피니티(22대), 푸조(16대) 순이었다.

중고 수입차는 출시 5년이 안돼 절반 가까운 감가율을 보

였다.

카사랑방 측은 "BMW 뉴 5시리즈 2011년식의 경우 3500만~3990만 원대, 아우디 뉴 A6 2010년식은 2520만~2950만 원대 시세가 형성됐다"며 "연식이 오래됐거나 주행거리가 긴 차량의 경우 1000만원 초반대에 팔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고유가현상도 중고 수입차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수입차비록 초기 구입비용 부담은 클지라도 고연비 차량이 많아 탈수록 효율이 높다는 것이 큰 메리트로 작용한 것. 때문에 수입차 중에서도 연비가 좋고 세금 부담이 적은 소형 또는 준중형급 디젤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신현철 카사랑방 팀장은 "수입차를 구매할 때는 무조건 저렴하다고 선택하지 말고 자동차세금과 더불어 수리비나 보험료 등 기타 유지비용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한 후 구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여행자 휴대품 통관 세금 사후납부 한도 200만원으로 확대

관세청은 내달부터 여행자 휴대품 통관 때 세금 사후납부 적용세액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세금 사후납부제도는 내국인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해 이를 스스로 신고하면 먼저 물건을 찾아 가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내면 되는 제도다.

앞서 관세청은 2012년 7월 사후납부 적용한도를 신고 건당 납부세액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관세청은 세금 사후납부제도의 지난해 이용실적이 19% 정도 증가했으나 체납발생률은 1.2%에 불과해 이를 다시 2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1월부터 고급가방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되면서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건수가 증가, 더욱 많은 여행자들에게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커진 것도 그 배경이라고 관세청은 전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약 5만 명의 여행자가 더 신속하고 편리한 여행자 휴대품 통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9일 류민열 정장 등 롯데백화점 광주점 나눔봉사단원들이 러브스토어 2호점으로 선정된 대인시장 보람식당에서 내부공사를 위해 식당 집기를 나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롯데백화점 광주점, 2년째 대인시장 살리기

러브스토어 2호점 직원 파견 수리 공사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2년째 지역 내 전통시장 살리기에 적극 나서,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9일 '러브스토어 2호점'으로 선정된 광주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동구 대인시장 내 2

개 점포에 백화점 직원 20여명을 보내 대대적인 수리공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러브스토어 2호점에 이름을 올린 2곳 점포는 휴어 가게 '주영상회'와 백반으로 유명한 '보람식당'.

휴어 가게인 주영상회의 입주 백정자씨는 겨울철 감자김치 담그기 등 남모르게 선형, 봉사활동을 벌여 시장 상인들 사이에 덕망이 높다.

보람식당은 20가지 넘는 반찬에 5000원짜리 백반을 팔아 유명한 곳이다.

입주 최미숙씨는 27년 동안 혼자서 이 식당을 꾸려나가고 있다. 남편과 사별했지만 4남매를 훌륭하게 키워낸 장한 어머니이기도 하다.

최씨는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아 송구스럽다"며 "이번 도움을 잊지 않고

손님들과 주변 상인에게 더 잘해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대인시장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장 내 점포 중 시설이 낡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을 '러브스토어'로 선정해 전기설비 수리, 도배, 장판 교체, 집기를 새로 마련하고 수납공간도 만드는 등 대대적인 실내장식 공사를 벌였다.

작년 첫해에는 화마로 점포가 타버린 시장 내 대표 국밥집 '구구식당'을 러브스토어 1호점으로 첫 선정해 수리공사를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익산국토청, 호남 교량·터널 안전점검

호남지역 교량 및 터널 등 주요시설물과 건설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9일 국토교통부 재난안전체계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5월20일까지 호남지역 교량 234개소와 터널 86개소, 도로 현장 전체 등에 대해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사항은 교량과 터널, 건설 현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재난 상황 발생 시 대응 태세, 방재시설의 실제 작동여부 등이다. 익산국토청은 앞으로 호남지역 익산청 관리현장에

대해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 실제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수습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5월23일까지 전국 4000여 현장에 대한 재난안전체계를 집중 점검한다.

민간전문가를 포함, 역대 최대규모의 18개 합동점검반(1278명)이 편성되며 교량과 터널, 댐 등 사회기반 시설 3400여 곳, 건설현장 570여 곳 등이 포함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KT, 광주·전남 5지사 13지점 체제 개편

KT가 유무선 유통·관리 등을 담당하는 236개 지사를 79개로 줄이는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영업경쟁력과 현장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9일 KT에 따르면 30일부터 기존 236개 지사를 통한, 79개로 광역화하고 지사 하부 조직으로 181개 지점을 신설해 현장 중심의 실행력

강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21개 지사였던 광주·전남지역 조직은 5지사(북광주·광산·서광주·순천·목포), 13지점 형태로 개편된다.

KT 측은 "각각 권역의 업무는 유지하면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형태로 재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23년 가발명가!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신제품 기적중얼가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大山 프리모 남가발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시술후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X,핀X

대산프리모가발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덩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381-0061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전 → 시공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덩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